

이진섭·군도씨 父子

2500km 도보대장정 마무리



지난 4월 '군도와 함께 세상걷기' 대장정 중 광주에 온 이진섭(오른쪽)·군도씨 부자.

“발달장애인 법 제정 이룰때까지 걷고 또 걷지요”

“발달장애인에게는 신체장애인과 전혀 다른 서비스가 필요한데 (정부에) 관련 체계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 도보 프로젝트를 계기로 좀 더 많은 관심과 법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5일 부산 기장부터 서울까지 약 800km의 도보 종단에 나선 이진섭(48)씨와 아들 군도(20·자폐성장애 1급)씨 부자가 48일만인 22일 오전 대장정을 마치고 서울 국회 앞에 도착했다.

이들 부자는 지난해 3월 ‘군도와 함께 세상걷기’ 프로젝트(본보 4월23일자 보도)를 시작, 총 4차례에 걸쳐 부산~서울, 기장~광주, 광주~서울, 기장~서울 등 총 2500여km를 걸었다.

이진섭씨는 “대중들에게 발달장애인의 이야기를 꼭 전달하고 싶었다”며 “군도는 1급 장애

인이지만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한달 60시간밖에 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또 “잘못된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 돼야한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해당 나이에 걸맞는 발달이 이뤄지지 않아 발달 선별검사에서 해당 연령 정상 기대보다 25% 뒤쳐져 있는 경우로, 뇌성마비, 정신지체 등을 의미한다.

직장암 초기인 이씨와 4살 아이 정도의 지능을 가진 군도씨에게 지난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덕분에 이들을 응원하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손에 2만원을 쥐여주고 간 택시기사와 1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좋은 일에 쏘달라’며 건넨 장애인 부모도 있었다. 하루 일과를 기록하는 페 이스북 계정에는 2000여명의 ‘페친(페이스북 친구)’이 생겼다.

이씨는 “한편으로는 갑상선암을 앓는 아내에

게 ‘휴가’를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발달장애인은 가족에게 생기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며 “아내가 아픈 몸으로 군도를 돌보느라 많이 지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군도씨가 힘들어하지는 않았느냐고 묻자 “군도가 밖에 나가는 것을 위나 좋아해서… 맛있는 것을 사주면 금방 힘을 냈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옆에 있던 군도씨도 아버지를 따라 천진하게 웃었다.

이들 부자는 이날 ‘세상걷기 4탄’을 마쳤지만 세상을 향한 이들의 외침은 계속될 예정이다.

이씨는 “부모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공부와 이 일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과 그들의 부모를 위해 계속 걷겠다”고 말했다.

/김일환기자 kih8@·연합뉴스

농협 광주본부 ‘청소년 꽃꽂이 교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와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지난 20일 대성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꽃사랑 농업사랑 청소년 꽃꽂이 교실’을 열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제공>

농어촌공 전남본부 노후주택 고쳐주기 봉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운)는 지난 20일 광주 광산구 동곡동에서 노후주택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현대삼호중, 녹색어머니회와 교통질서 캠페인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1일 영암경찰서, 삼호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합동 교통질서 준수 캠페인’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고리물기 금지 등 교통질서 준수를 당부했다.

호남대-中 하북예술대 상호교류 협약



호남대학교(총장 서강석)는 지난 21일 대학 광산캠퍸스 교무위원회의 실에서 중국 하북예술대학(총장 견충의)과 상호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호남대 제공>

두암1동 학생사랑협 풍향초서 폭력예방 캠페인



광주 북구 두암1동 학생사랑지역협의회 회원들과 두암1동 직원들은 최근 풍향초등학교 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장정식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장 수필집 ‘초달의 의의’ 펴내



장정식(사진)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장 수필집 ‘초달의 의의’를 펴냈다.

‘다도해의 천백일’, ‘북은 의자의 변’, ‘역사의 현장에서’ 등 다수의 저서를 낸 그는 이번 수필집에서 서정적인 수필 14편과 ‘초달’(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림)에 관해 교육현장의 현실을 논한 교육에세이 등을 한데 묶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박영식 광융용연구사업본부장 3D융합산업 발전 광주시장 표창



박영식(사진) 한국광기술원 광융용연구사업본부장이 22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열린 ‘광주 3D융합산업 포럼’에서 지역 내 3D융합산업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박 본부장은 초광역 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 기획과 3D융합산업육성포럼 개최 등 3D융합 분야 발전에 노력해 왔다. /박정숙기자 jwpark@

광주과학기술원 박성주 교수 한국광전자학회 회장 선출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부 박성주(사진) 교수가 최근 (사)한국광전자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3년 1년간이다.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한 박 교수는 미국 코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IBM의 월슨 리서치 센터 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1995년부터 지스트 교수로 재직 중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출신 故 서정우 하사 2주기… 단국대서 추모식



연평도 포격도발 2주기를 하루 앞둔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고 서정우 하사의 유족이 묵비를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버스커버스’ 보컬 장범준 신인 탤런트 송지수와 열애

밴드 버스커버스의 보컬 장범준(광주 출신·사진)과 신인 탤런트 송지수가 연인 사이로 알려졌다. 양측의 관계자는 22일 “두 사람이 교제한 지 1년 정도 됐다”며 “송지수가 지난해 장범준과 친분 있는 연주자에게 기타 레슨을 받으면서 두

연평도 포격 당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 추모식이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유족과 대학 관계자,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오후 열렸다.

이날 추모식은 고인이 평소 다닌던 법학과 교정에 1주기 추모식에 맞춰 건립된 추모비 앞에서 고인에 대한 묵념, 추모사, 현화 및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고 서정우 하사는 광주 출신으로 2008년 단국대 천안캠퍼스 법학과에 입학해 1학년을 마치고 2009년 초 해병대에 자원입대 했다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순국했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사람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장범준은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3’ 준우승팀인 버스커버스의 보컬 겸 기타리스트로 작사, 작곡도 맡고 있다. 버스커버스는 지난 3월과 6월 잇따라 발표한 앨범으로 각종 차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인기 밴드로 자리잡았다. /연합뉴스

영암 해군 3함대 장병들 도서·의류 2천여점 모아 소외이웃·아동시설 전달

해군 3함대(영암군)는 22일 어려운 이웃과 청소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장병의 소중한 물품을 기증받아 전달했다.

3함대는 지난달 17일부터 9일까지 장병으로부터 도서, 의류, 신발, 완구, 잡화 등 2000여 점을 기증받았다.

이 물품은 부대 인근의 소전원, 성덕원, 공생원, 아동원 등 4개 시설에 전달됐다.

장병 100여 명은 물품 전달과 함께 건물 외벽 세척, 텃밭 일구기 등 봉사 활동도 펼쳤다.

3함대는 셀 지역 학생들에게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을 초부터 신안 흑산도, 제주 주자도, 육지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원’이 그것이다.

학원도 없는 셀 지역에서 54명의 장병이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 등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3함대는 셀 지역 학생들에게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을 초부터 신안 흑산도, 제주 주자도, 육지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원’이 그것이다.

학원도 없는 셀 지역에서 54명의 장병이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 등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3함대는 셀 지역 학생들에게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을 초부터 신안 흑산도, 제주 주자도, 육지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원’이 그것이다.

학원도 없는 셀 지역에서 54명의 장병이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 등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3함대는 셀 지역 학생들에게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을 초부터 신안 흑산도, 제주 주자도, 육지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원’이 그것이다.

학원도 없는 셀 지역에서 54명의 장병이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 등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3함대는 셀 지역 학생들에게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을 초부터 신안 흑산도, 제주 주자도, 육지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원’이 그것이다.

학원도 없는 셀 지역에서 54명의 장병이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 등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3함대는 셀 지역 학생들에게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을 초부터 신안 흑산도, 제주 주자도, 육지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원’이 그것이다.

학원도 없는 셀 지역에서 54명의 장병이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 등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3함대는 셀 지역 학생들에게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을 초부터 신안 흑산도, 제주 주자도, 육지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원’이 그것이다.

학원도 없는 셀 지역에서 54명의 장병이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 등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3함대는 셀 지역 학생들에게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을 초부터 신안 흑산도, 제주 주자도, 육지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원’이 그것이다.

학원도 없는 셀 지역에서 54명의 장병이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 등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3함대는 셀 지역 학생들에게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을 초부터 신안 흑산도, 제주 주자도, 육지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원’이 그것이다.

학원도 없는 셀 지역에서 54명의 장병이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 등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3함대는 셀 지역 학생들에게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을 초부터 신안 흑산도, 제주 주자도, 육지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원’이 그것이다.

학원도 없는 셀 지역에서 54명의 장병이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 등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3함대는 셀 지역 학생들에게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을 초부터 신안 흑산도, 제주 주자도, 육지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원’이 그것이다.

학원도 없는 셀 지역에서 54명의 장병이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 등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3함대는 셀 지역 학생들에게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을 초부터 신안 흑산도, 제주 주자도, 육지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원’이 그것이다.

학원도 없는 셀 지역에서 54명의 장병이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 등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3함대는 셀 지역 학생들에게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을 초부터 신안 흑산도, 제주 주자도, 육지 등에